



비상한상상



#꿈을_ 향한_ 비상에는_ 경계가_ 없어야_ 하니까!



**비상한상상
오픈워크숍**

2023

꿈을 향한 비상에는 경계가 없어야 하니까!

비상한상상



비상한상상은 제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의 양극화 및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출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블로그 소히월드x유난무브먼트의 소셜펀드로 런칭되었으며, 현재 세번째
시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한상상의 미션에 공감한 운영팀 13인이
모여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로 본 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가는 중입니다.

디렉터 양소희

리서치팀 박소영 (Lead) 손인영 김유희 박산솔 허선주 조윤이








솔루션팀 김유희 (Co-Lead) 홍지현 (Co-Lead) 신채원 이서연 김보미 조윤이

컨텐츠팀 허선주 (Co-Lead) 김보미 (Co-Lead) 박산솔 이서연 김유나




꿈여행기획팀 유하랑 (Lead) 신채원 박소영 김유나

제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청소년들의 경험과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하게 나아가는 —— 중!

[주요연혁]

-  2022. 01 비상한상상 꿈여행 Season1 진행, 장학생 4명 배출
-  2023. 01 비상한상상 꿈여행 Season2 진행, 장학생 5명 배출
-  2023. 08 비상한상상 Season3 출범
-  2023. 09 제주 출신 상경청년 심층인터뷰 프로젝트 진행
-  2023. 10 비수도권 청소년 문제해결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요망진상상> 런칭, 8주 교육과정 운영
-  2023. 10 수도권-비수도권 청소년 각 100인 대상 경험실태조사 진행
-  2023. 12 <비상한상상 오픈워크숍> 개최

[주요 수상/선정내역]

-  2023. 04 토스 머니스토리 공모전 '소중한 마음' 부문 대상 (1위)
-  2023. 07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선정
-  2023. 08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제주생활탐구 지원사업 선정

PART. 00

내부 문제정의 워크숍

개요

비상한상상 리서치팀이 9-10월 간 설계한 양적연구 (청소년 대상 경험실태조사) 및 질적연구 (상경청년 인터뷰 프로젝트) 문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한 내부 문제정의 워크숍을 두 차례 기획-진행하였습니다.

- 참여대상: 비상한상상 운영팀
- 진행내용: 리서치팀이 설계한 양적연구-질적연구 문항설계 검토 및 확인 (2차)
- 진행일시: 2023. 10. 31 (화) 저녁 10시 - 11시 진행



주요 결과

① <경험>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 '비상한상상 경험사전' 통해 멤버 간 경험 정의에 관한 단어-표현-인식 수집
- [체험 / 변화 / 확장 / 연결 / 의미] 키워드 도출
- 우리가 정의한 경험은 "내가 겪은 어떠한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일, 특히 나와 타인, 외부세계가 연결되며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일"로 정리

② 양적연구 설문 피드백 완료

- 진로체험부분의 "소셜섹터, 스타트업" 등의 용어가 일부 청소년들에게 낯설 수 있으므로, 괄호로 가벼운 설명을 추가하도록 함
- 진로체험부분의 "하고 싶은 직업에 관한-" 질문을 묻기 전,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비상한상상팀이 주목하는 사회자본의 키워드 중 하나는 지역성. 이 지역성을 거쳤을 때 드러나는 인사이트를 수집해야 함. 지역에 대한 애정-계속 거주 희망 여부 등 추가로 확인하도록 함

③ 질적연구 설문 피드백 완료

- 상경 전 무엇을 통해 경험과 기회의 격차 및 부재를 경험했는지 확인하도록 함
- '경험과 기회의 격차'라는 문제의식이 막연하지만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느낌. 이 부분을 잘 끌어내어 가시화-언어화 하는 인터뷰가 되길 바램
- 비상한상상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부족한 무언가라는게 아니라, 지역이 한계가 되는 지점을 포착하려는 것.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미래를 상상하려면? 지역에서도 자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건드리고 상상해야할지 고민하기 위해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궁극적으로 지역의 포텐셜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해보기.

PART. 01

서울-제주 청소년 대상 경험실태조사 진행

개요

청소년기의 경험은 한 사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경험-기회의 종류, 양과 질, 풍요와 결핍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에 <비상한 상상>은 비수도권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과 기회의 격차 문제에 주목해 제주-서울 청소년 각 100인을 대상으로 <경험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청소년들 간 경험과 기회의 격차가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 설문대상: 서울 및 제주에 거주하는 2005년생 ~ 2010년생 청소년 (2023년기준)
- 설문내용: 청소년의 문화, 교육, 진로, 사회적 자본에 관한 경험 수집
- 설문방법: 온라인 구글폼 (서울&제주) 및 오프라인 대면 설문 (제주) 동시 진행

진행경과

- 설문기간: 2023. 11. 14 ~ 2023. 12. 10 (26일 간 진행)
- 응답수집: 제주 청소년 77건, 서울 청소년 54건 응답 수집 완료
- 분석방법: 비상한상상 리서치팀 주도 문항수집-가공 및 분석-인사이트 정리

주요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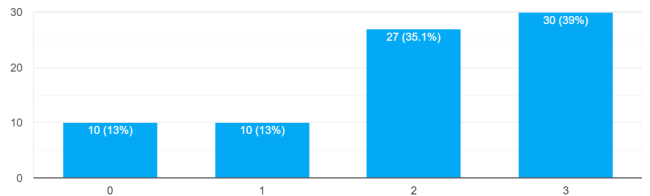
[문화자본] 파트

- 이동의 한계에 따른 문화자본의 기회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 (소유-기회-과정불평등)
- 문화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연결된다는 문항에서는 서울 청소년의 긍정답변 비중이 큼. 제주 청소년들은 문화생활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적.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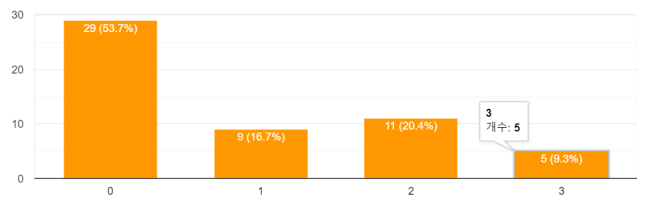
- 관심 분야, 취미생활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 청소년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긍정 반응(3-4점대)이 높음. 반면 제주 청소년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현저히 낮고 2-3점대 비율이 훨씬 높음

*참고: 응답값은 다음과 같이 구성 [전혀 아니다 (1) - 아니다 (2) - 그렇다 (3) - 매우 그렇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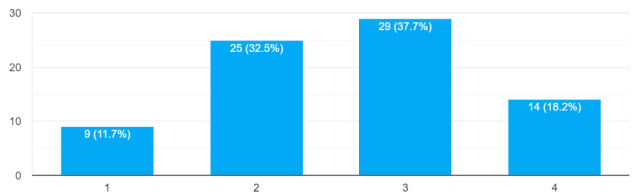
2. 나는 이동의 한계로 문화생활을 포기해야 했던 적이 있다. 제주 청소년 복사
응답 7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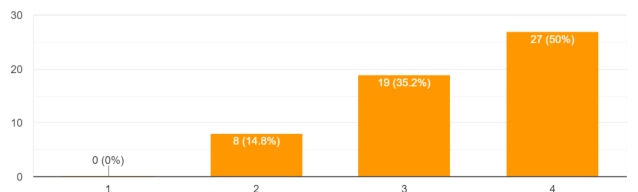
2. 나는 이동의 한계로 문화생활을 포기해야 했던 적이 있다. 서울 청소년 복사
응답 54개



8. 나는 관심 있는 분야, 취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제주 청소년 복사
응답 77개



8. 나는 관심 있는 분야, 취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서울 청소년 복사
응답 5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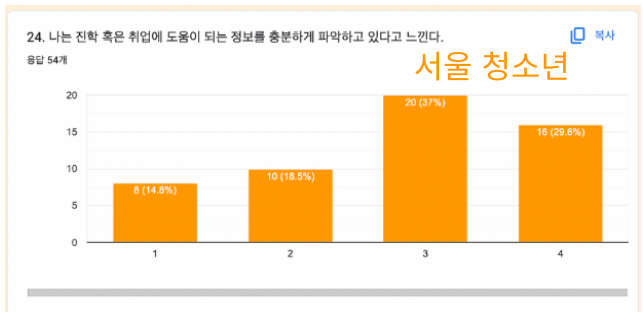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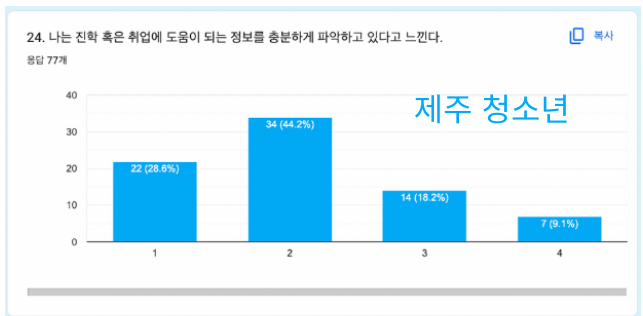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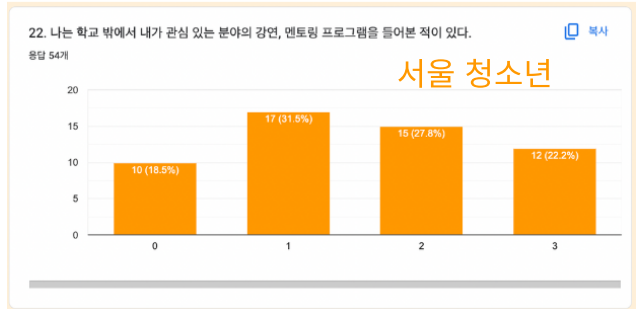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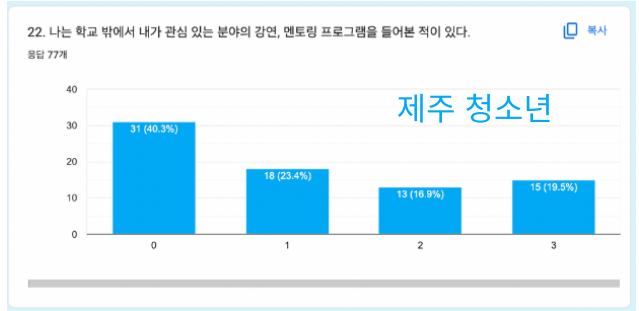


주요 내용 분석

[교육기회] 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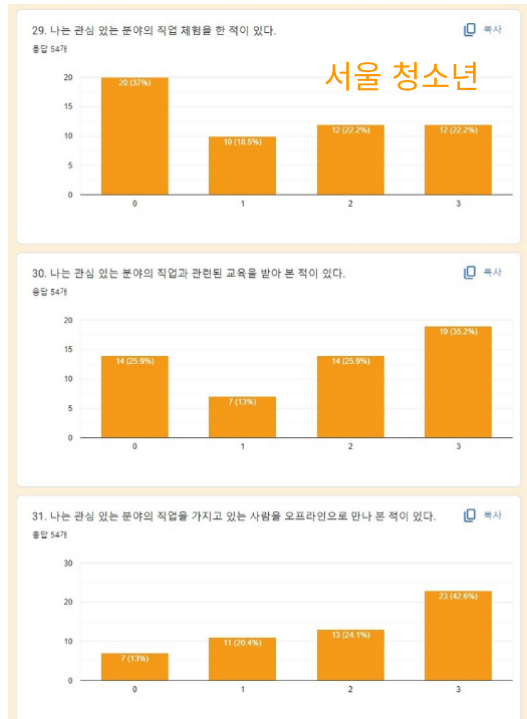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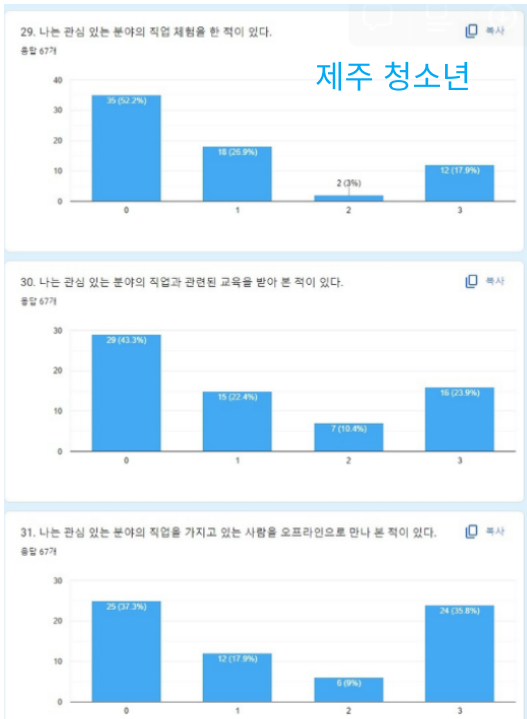
· 교외에서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강연, 멘토링 등 프로그램에 1~3회 이상 참여해본 청소년의 수는 제주-서울 비슷하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청소년의 수는 제주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그림에도 1~3회 이상 경험을 해본 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결여-단절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진학 혹은 취업 정보 파악과 관련한 문항 답변에 확연한 차이를 보임. 제주 청소년은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청소년(1~2점) 비율이 72.8%, 서울 청소년은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66.6%(3점,4점 답변)로 나타남. 제주/서울 청소년 간 진학 혹은 취업 정보와 관련해 격차를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음



주요 내용 분석

[진로체험기회] 파트



- 서울과 제주 청소년 모두 관심 직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다양성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관심 직업 분야의 교육-체험-교류의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에서부터 서울과 제주 청소년 간 차이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 청소년의 경우 "관심 진로분야 교육을 받아본 적 없음"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은 25.9%인 반면, 제주 청소년의 응답 비율은 43.3%로 두 배 가량 높은 편임
-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서울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체험-만남의 횟수가 [0회 10명, 1회 20명, 2회 30명, 3회 이상 50명]과 같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제주 청소년들의 경우 [0회 30명, 1회 20명, 2회 10명, 3회 이상 30명]과 같이 양극화되어 나타남

주요 내용 분석

[진로체험기회] 파트

제주 청소년

서울 청소년

35. 내가 사는 지역은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있다. (자격증 학원 등)

77 responses



35. 내가 사는 지역은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있다. (자격증 학원 등)

54 responses



36. 나는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 온/오프라인 단체 등에 가입해 본 적이 있다.

77 responses



36. 나는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 온/오프라인 단체 등에 가입해 본 적이 있다.

5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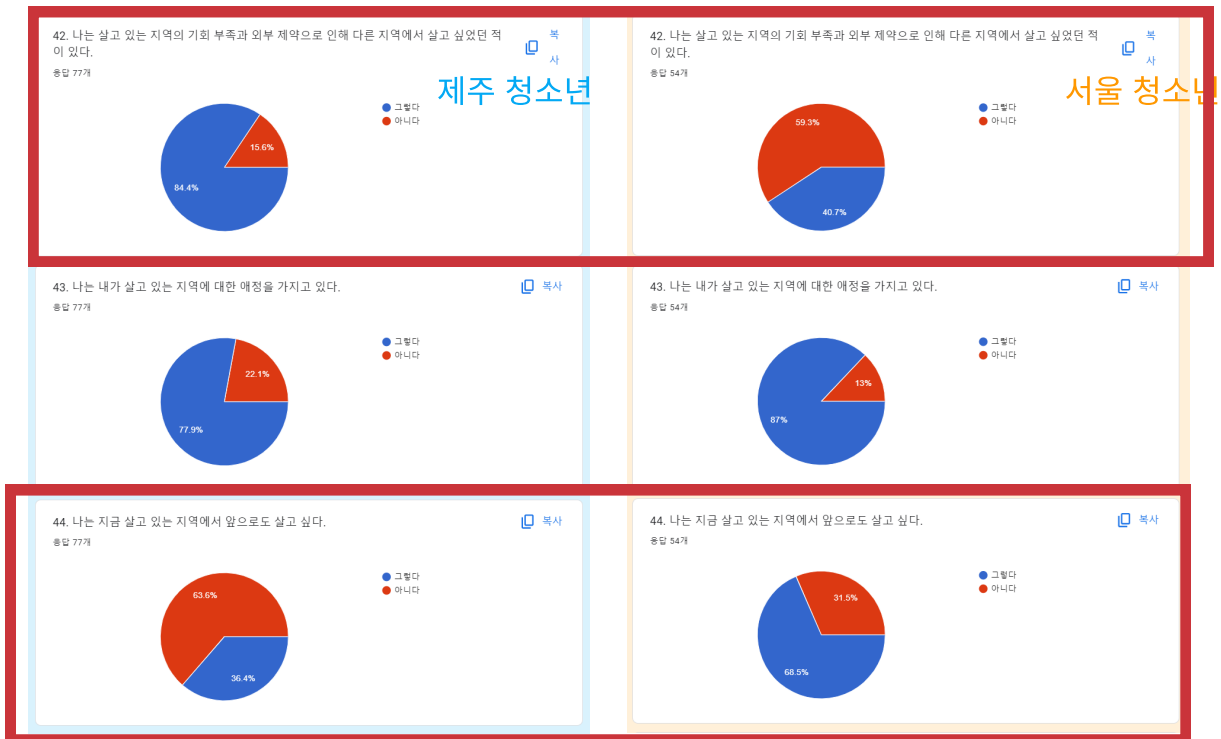


· 기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부분에서는 제주 청소년과 서울 청소년의 인식이 눈에 띄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제주 학생은 3/4인 75%가 넘는 비율로 기회가 없다고 느낀 반면, 서울 학생의 경우 3/5인 60%에 가깝게 기회가 있다고 느꼈음. 독일 사회학자 Max Weber가 계급을 나누는 인식으로 개인의 생활 기회(life chance)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응답은 접근성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볼만 함

· 또한 실제로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된 단체 가입 정도에서도 과반수 넘는 (63.7%) 제주 청소년은 거의 없으며, 서울 청소년은 과반수 넘게 있다고(53.7%) 답하였음. 실제로 기회가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접근성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경험 불평등 혹은 더 나아가 ‘시장 위치(market position)’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 낼 지는 장기간 연구로 남겨둘 가치가 있음

주요 내용 분석

[사회자본] 파트



·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기회 부족과 외부 제약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살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경험실태조사 전반을 통틀어 가장 뚜렷하게 패턴 차이가 나타남. 제주 청소년의 경우 84.4%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서울 청소년의 경우 59.3%가 "아니다"라고 응답

· 지역에 대한 애정도를 묻는 질문의 경우, "애정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비율은 서울-제주 두 지역 모두 높았으나(제주 76%, 서울 87%), "앞으로도 현재 거주 지역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은 완전히 반전되어 나타남을 확인 (제주 "아니다" 63.8%, 서울 "그렇다" 68.5%)

부록: 경험실태조사 문항 전체

[비상한상상_청소년 경험의 양극화 실태조사]

I. 기초 정보 수집

아래 항목은 설문조사 참여자의 기초 정보 및 설문조사 참여 혜택 (추첨을 통한 5000원 상당의 카페 기프티콘) 지급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란입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

2005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 2010년생

• 성별

남성 여성 응답 원하지 않음 기타()

• 거주지

제주시 서귀포시 조천읍 구좌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안덕면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우도면

• 연락처

*추첨을 통한 설문 혜택(5000원 상당의 카페 기프티콘)을 받을 연락처를 기입해주세요.
혜택을 원하지 않을 시, '희망 하지 않음'이라 적어주세요.

010 - _____ - _____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다면 체크해주세요.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출생 연도, 성별, 거주 지역,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비상한 상상>에서 진행하는 설문 응답 수집 및 연구 참여에 따른 소정의 리워드 지급 안내 등에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고 보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기간 : 설문 참여 혜택 지급 후 90일간)
- ※ 귀하는 이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설문조사 참여 혜택 지급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비상한상상_청소년 경험의 양극화 실태조사]

II. 문화자본

1~17번 문항은 청소년들의 문화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본 설문 속 '문화생활'은, 전시, 공연, 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을 의미합니다.

'문화 시설'은, 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을 지칭합니다.

1. 나는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2. 나는 이동의 한계로 문화생활을 포기해야 했던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3. 나는 지역 내 문화시설에서 나의 취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문화생활을 통해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느낀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문화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연결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나는 문화생활이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문화생활에서 기쁘고 슬픈 감정, 감동 등 감정의 변화를 느낀 경험이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관심 있는 분야, 취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관심 있는 분야, 취미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PART 01. 서울-제주 청소년 대상 경험실태조사 (2023) 결과

[비상한상상_청소년 경험의 양극화 실태조사]

10. 내가 사는 지역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없다 1곳 2곳 3곳 이상

11.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취미 활동이 가능하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내가 사는 지역에는 방과 후나 주말에 돈을 내지 않고 친구들과 3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

예 아니오

13. 최근 1년 사이 전시, 뮤지컬, 공연, 콘서트 관람 횟수는 몇 회인가요?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14. 문화시설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의지 부모님 등 보호자의 권유 학교 행사 교외 행사
 기타 ()

15. 문화생활을 즐길 때 이동 수단은 무엇인가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부모님 등 보호자의 자가용 기타 ()

16. 최근 1년간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SNS 혹은 영상 시청(YouTube, Netflix 등) 실내/외 스포츠 활동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방문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 관람
 기타 ()

17. 최근 1년간 여가 시간은 주로 어떤 공간에서 보내나요? (주관식 응답)

PART 01. 서울-제주 청소년 대상 경험실태조사 (2023) 결과

[비상한상상_청소년 경험의 양극화 실태조사]

10. 내가 사는 지역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없다 1곳 2곳 3곳 이상

11.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취미 활동이 가능하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내가 사는 지역에는 방과 후나 주말에 돈을 내지 않고 친구들과 3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

예 아니오

13. 최근 1년 사이 전시, 뮤지컬, 공연, 콘서트 관람 횟수는 몇 회인가요?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14. 문화시설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의지 부모님 등 보호자의 권유 학교 행사 교외 행사
 기타 ()

15. 문화생활을 즐길 때 이동 수단은 무엇인가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부모님 등 보호자의 자가용 기타 ()

16. 최근 1년간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SNS 혹은 영상 시청(YouTube, Netflix 등) 실내/외 스포츠 활동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방문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 관람
 기타 ()

17. 최근 1년간 여가 시간은 주로 어떤 공간에서 보내나요? (주관식 응답)

[비상한상상_청소년 경험의 양극화 실태조사]

III. 교육 기회

18~26번 문항은 청소년들의 교육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8. 나는 공교육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나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는 지역사회 내에서 내게 필요한 학습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학교 밖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22. 나는 학교 밖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23. 나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24. 나는 진학 혹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나는 가고 싶은 대학 혹은 취업하고 싶은 곳을 미리 방문해 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26. 나는 교육기관 및 교육기회 부재로 인해 타 지역으로의 원정교육을 떠난 경험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IV. 진로 체험 기회

27~38번 문항은 청소년들의 진로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7. 나는 관심 있는 진로 분야가 있다.

그렇다 아니다

28.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관심 분야의 직업이 있다면 아래에 적고, 없을 시 '없음'이라 써주세요.)

29. 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 체험을 한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30. 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31. 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 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32. 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진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33. 나는 하고 싶은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거리 상의 이유로 망설이거나 포기해 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34.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지역 내에서 얻을 기회가 있다. (진로 체험 박람회 등)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35. 내가 사는 지역은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있다. (자격증 학원 등)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비상한상상_청소년 경험의 양극화 실태조사]

36. 나는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 온/오프라인 단체 등에 가입해 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37. 나는 소셜 섹터 및 사회혁신기관에 방문해보거나 종사자와 만나본 적이 있다.

*소셜 섹터 :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서로 협력하는 조직을 뜻함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38. 나는 스타트업에 방문해보거나 종사자를 만나본 적이 있다.

*스타트업 :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을 뜻함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비상한상상_청소년 경험의 양극화 실태조사]

V. 사회자본

39~53번 문항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및 지역사회 내 경험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9. 나는 내가 사는 곳 이외의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40.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방문했나요?

가족 행사로 인한 이동 여행이나 문화 체험 이사나 거주지 이동 방문 경험 없음
 기타 ()

41.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인한 기회의 부족이나 성장의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42. 나는 살고 있는 지역의 기회 부족과 외부 제약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었던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4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44.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도 살고 싶다.

그렇다 아니다

45. 나는 학교 친구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렇다 아니다

46.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학교 친구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PART 01. 서울-제주 청소년 대상 경험실태조사 (2023) 결과

[비상한상상_청소년 경험의 양극화 실태조사]

47.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학교 친구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친목을 위한 장소가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8. 나는 부모님, 선생님 이외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49. 나는 부모님, 선생님 이외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에게 직접 조언을 구해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50. 나는 지역 내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알고있다 잘 알고있다

51. 나는 지역 내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52. 나는 지역 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이 만족스러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3. 나는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4. 나는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불만을 가졌던 일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실행에 옮긴 적이 있다.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PART 01. 서울-제주 청소년 대상 경험실태조사 (2023) 결과

55. 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거나 이끌어 본 경험이 있다.

*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교 혹은 지역사회 등과 같이 내가 속한 곳의 문제를 인식,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뜻함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PART. 02

제주-서울 상경청년 12인 심층 인터뷰

개요

개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 따른 경험과 기회의 격차는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되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아직 해당 문제가 가시화, 수치화되지 못했다는 데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개개인들의 삶 속의 경험과 기회의 양상과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비상한상상 팀은 제주 지역에서 상경한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로 및 상경 과정을 역추적해보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 비수도권 청소년으로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부재, 결핍, 격차를 인지하거나 감각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경을 결심한 원인과 경로를 추적하고, 제주에서 경험과 기회의 부족을 인지한 정도와 상경 이후 만족도와 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진행경과

- 인터뷰 기간: 2023. 11. 11 ~ 2023. 12. 01 (20일 간 진행)
- 인터뷰 대상: 제주에서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 서울로 상경한 20-39세 대상, 총 12인 인터뷰 진행
- 인터뷰 방법: 온라인 Zoom, 대면 인터뷰 중 응답자 선호에 따라 진행

주요 응답 분석

① 응답자 대부분은 [입시-대학진학] 단계에서 상경 결심-이행한 것으로 확인. 개인의 결단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크게 반영되어 자연스레 내려진 결정으로 보임

"대학교 가면서는 당연히 서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쪽 했어요" (응답자 C)

"제주도 모든 학생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육지로 대학을 가자. 이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라서" (응답자 F)

"대학교 원하는 과가 확실했고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응답자 G)

"엄마랑 진학, 진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는데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동지를 떠나야 돼" (응답자 H)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대학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응답자 L)

② 청소년 시절, 상경 자체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가 커지게 된 계기는 교육격차 보다 '문화 인프라'의 영향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꼭 서울에 가서 이런 기회를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는 사실 못했고..

아이돌이나 연예인 관련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응답자 B)

"저는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가수가 있었는데 이제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콘서트를 가려면 비행기 타고 이제 숙박까지 생각을 하니깐 콘서트도 못 가고 막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응답자 F)

"(제주도는) 심심하고 약간 지루한 공간이었어서.. 뭔가 서울 가면 더 많은 이벤트도 있어서 그런 거 조금 더 자주 접하고 싶었고. 그 도시가 주는 뭔가 화려한 거 좋아했던 것 같고 다양하게 사람이 모이는 것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응답자 I)

"중학교 때인가 코엑스를 방문했었는데, 그런 큰 문화시설들을 접하면서 되게 서울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응답자 K)

③ 응답자들은 상경 이후 '직업관'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답했으며, 수도권 생활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로 교통-교육-문화인프라 보다 '인적자본'을 강조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면담할 선배가 없다는 거, 물어볼 선배.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서울은 좀 다르구나를 더 본격적으로 느낀 건 저희 회사 와서도 이렇게 들어보면 진로 관련된 고민이나 나누는 게 되게 활발한 느낌." (응답자 A)

"(직업관이) 완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교육과를 다니다 보니 뭔가 교육 쪽에서 일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하며 진학했는데, 세상엔 생각보다 되게 직업이 많다는 걸 서울 와서 느낀게 된 것 같아요. 동시에 제주도에 볼 수 있는 직업이 되게 한정적이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아무리 그걸 본다 해도 뭔가 내 옆에 없으면 그걸 되게 생생하게 그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응답자 B)

"인적 네트워크가, 사실 그런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들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이나 어떤 고등학교랑 되게 비슷하게 내가 어떤 진로로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미 그걸 달성한 선배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랑 아니면 자기가 진짜 구글링해서 찾아보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응답자 D)

"서울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뭘 느낄 수 있냐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눌 수 있고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고 이러다 보면 비슷한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응답자 G)

④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상경 이후 본인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경험과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감각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음

"수도권 분들은 약간 아무래도 인프라가 되게 좋으니까 그런 거를 자신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한테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근데 저는 제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때는 뭔가 정해진 진로만 있다고 여겼었거든요." (응답자 B)

"아쉬움과 좀 비슷한 감정이긴 해요. 사실 그냥 저는 (수도권에서의 청소년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때 경험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모습들을 자꾸 상상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막 놀라면서 신기해하면서 있는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상대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학생 때도 저런 태도와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어요." (응답자 E)

"요즘 제가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막 탐방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막 인터뷰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오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생각하는데 한편 정말 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탐방을 간다는 거를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잠깐이나마 대학의 문화를 느끼고 또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학생들의 열정을 키우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 서울이나 다른 서울에서 지냈다면 아까 제가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 불평등에 대한 생각이 지금처럼 강하지는 않았겠다." (응답자 F)

"저는 연극 전공이었거든요. 그런 연극사들을 다 그냥 개네들(수도권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동기들)은 다 배웠대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런 뭐 그런 기본적인 연기 수업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익힐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조금 부러웠어요. 경험이 많았을 테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응답자 H)

⑤ 응답자들이 언급한 상경 이후의 어려운 점은 '주거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외에도 '네트워크 부족', '가족-친구들과의 물리적 거리', '속도와 압박감' 등을 언급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서울에 상경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월세나 이런 것들을 따로 구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 출발선상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심지어 통학 거리도 짧은데 그런 집이랑 왔다 갔다 하고 딱 그 공부만 하면 되는 시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었는데 우리는 최소한 이제 저는 등록금도 제가 벌었거든요.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아니면 기숙사 다닌다고 해도 기숙사비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다 지금은 사회 경험이 되고 되게 좋은 쪽으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 다닐 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포션이나 내가 진짜 진로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 혹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밀려났던 것 같긴 해요." (응답자 D)

"그것보다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센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데 교육을 해준다면 아니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좀 경험해봤던 멘토들이 있었으면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엄청난 거 아니더라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그 모든 풍파를 다 겪지 않아도 되니까 (...)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상경을 할 이제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고3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싹 다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멘토를 매칭을 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 모든 걸 다 저 혼자서 구글링을 하면서 찾았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 꽤 있는데 그들의 경험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랄까. 다 리셋이 되는 거 같아요. 경험이 누적이 돼서 쌓이는 게 아니고 리셋. 다시 또 처음 시작되고.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응답자 G)

⑥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언젠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다만 경제적-직업적 안정성 확보 (주로 노후시기) 가 중요한 조건이라고 언급함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정말 유명해져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나한테 작업 의뢰하러 올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전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위치가 중요하지 않게 되면은 제주도에 살게 될 것 같아요." (응답자 C)

"저는 제주도에 내려가고 싶어요. 10년 후에도 물려주고 싶은 환경이 서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내려가면 당연히 그런 자연 환경도 있고 또 사람이 여유로워요. 실제로 같이 일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진짜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 언젠가 이 정도의 지식이나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제 이 분야에서는 내가 뭘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나아가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어라는 그런 직업적 확신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또 내려가서 그냥 지낼 것 같아요." (응답자 D)

"언젠가 제주도로 돌아갈 생각은 있는데 좀 많이 나중에 노후의 계획일 것 같고, 그 전에도 대학 생활 중에도 잠깐은 제주도에 한 학기 정도는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에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나 아니면 그냥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경험들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강하게 들었어서 아마 대학생활 중에도 잠깐이나마 제주도에 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서 다시 만약 제가 보금자리를 찾는다면 또 제주도에 가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F)

"청소년기 때는 제주도를 그냥 엄청 당연하게 나는 서울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저희가 돈 벌 수 있는 그 나이대 기간이 있잖아요. 그 때 동안에는 최대한 서울에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는 꼭 제주도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꼭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응답자 J)

부록: 인터뷰 사전질문지 전문

사전 질문지 (연구참여자용)

제주 출신 2030 상경 청년의 경험의 양극화 연구

본 인터뷰는 연구참여자가 제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후 성인이 되어 서울로 올라온 서사에 주목합니다. 연구참여자의 <성장과정 -> 상경과정 -> 상경 이후>에 대해 질문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질문은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리 공유해드리니 가볍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장 과정

성장 과정에서 경험과 기회의 부족을 인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연구참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었다고 인지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상경을 결심한 과정과 지역을 떠나게 된 주요 원인이 궁금합니다. 이에 연구참여자의 성장 과정을 서사적인 느낌으로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 청소년기 시절,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에서 누리고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한 적 있나요? 혹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는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한 적 있나요?
- 상경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만약 제주 내에서 제주도를 떠나게 한 이유가 해결되었다면, 제주도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상경 과정

상경을 실행하기까지의 경로 되짚어보며 실질적으로 서울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 상경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상경 후 정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상경 이후

상경 이후, 서울과 제주에 대한 인식과 그 만족도를 여쭙보고자 합니다.

- 수도권에 상경한 이후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생활 인프라/진로 및 직업적 측면/인간관계 등)
- 상경 및 상경하여 만난 다양한 인물, 기회가 자신의 꿈과 비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 앞으로 제주에 돌아갈 생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행일	2023. 12. 29
발행처	비상한상상
연구기획	비상한상상 리서치팀 박소영 (Lead) 손인영 김유희 박산솔 허선주 조윤이
발간참여	비상한상상 Season3 운영팀
편집 및 검수	양소희 박소영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상항상상

#꿈을_ 향한_ 비상에는_ 경계가_ 없어야_ 하니까!

www.be-sangsang.com

INSTAGRAM : @bisanghan_sangsang

EMAIL : hello.besangsang@gmail.com